

07. 『성학집요』

『성학집요』는 1575년에 율곡이 임금의 배움을 위해 저술한 서적이다. 정치사상서이며 제왕학을 다룬 철학 서적이기도 하다. 현명한 신하가 임금에게 성인의 학문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율곡은 홍문관 부제학이었는데 유교 경전과 역사 서적 가운데 군주가 학문을 닦고 정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문장을 묶어 5편으로 차례를 정해 나누고 설명을 붙인 것이다.

『율곡전서』 제19권에서 26권까지 『성학집요』가 수록되어 있다. 『성학집요』 서문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집필 목적을 소개했다.

“생각건대,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에 도가 이미 분명하고도 빠짐없이 적혀 있으니, 글로써 도를 구하면 이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근심이 되는 것은 그 책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해서 요령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대의 현인이 먼저 『대학』을 드러내어 규모를 잡았습니다. 성현의 천 가지 계책과 만 가지 교훈이 모두 이 『대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 책이야말로 요령을 잡는 법을 잘 보여줍니다. (중략)

이에 다른 일을 덮어 두고 사서와 육경, 그리고 앞선 유학자들의 학설과 역대의 역사서까지 깊이 탐색하고 널리 찾아서, 핵심이 되는 것을 수집하고 차례를 분류하고 번다한 것을 삭제하여 요점을 잡았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반복해서 수정하여 두 해에 걸쳐 모두 다섯 편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구상할 때,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학』을 중시하여 그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았다. 그는 성현들의 모든 계획이 다 『대학』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대학』을 ‘덕(德)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의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성학집요』의 내용을 구성했다.

서문에는 5편으로 구성된 『성학집요』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편 통설(統說) :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합하여 말한 것. 『대학』에서 말한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 그리고 지극히 착한 데 있는 것(止於至善).

2편 수기 : 『대학』에서 말한 밝은 덕을 밝힘(明明德). 다음과 같이 모두 열세 조목임

1장 총론(總論)

2장 입지(立志)

3장 수렴(收斂) : 목표를 정하여 흩어진 마음을 구해 『대학』의 기본을 세

음

- 4장 궁리(窮理) : 『대학』에서 말한 격물치지(格物致知)
- 5장 성실(誠)
- 6장 기질을 교정하는 것(矯氣質)
- 7장 양기(養氣)
- 8장 정심(正心) : 『대학』에서 말한 성의(誠意)·정심(正心)
- 9장 검신(檢身) : 『대학』의 수신(修身)
- 10장 회덕량(恢德量) : 덕량을 넓힘
- 11장 보덕(輔德)
- 12장 돈독(敦篤) : 성의·정심·수기의 남은 뜻을 거듭 논한 것
- 13장 그 효과를 논함 : 수기(修己)가 지선(至善)에 있게 되는 것

3편 정가(正家) : 『대학』에서 말한 신민(新民) 중 제가(齊家)를 말함. 정가(正家)의 조목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개임.

- 1장 총론
- 2장 효경(孝敬)
- 3장 형내(刑內,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것)
- 4장 교자(教子)
- 5장 친친(親親) :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처자(妻子)에게 모범이 되며, 형제 간에 우애하는 도리
- 6장 근엄(謹嚴)
- 7장 절검(節儉) : 미진(未盡)한 뜻을 미루어 연역(演繹)함
- 8장 공효(功效) : 제가(齊家)를 지선(至善)에 이르게 함

4편 위정(爲政)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말함. 위정(爲政)의 조목은 다음과 같이 열 개임

- 1장 총론(總論)
- 2장 용현(用賢) :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
- 3장 취선(取善) : 선한 이를 취함. 『대학』에서 말한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뜻
- 4장 식시무(識時務) : 시무를 알아야 함
- 5장 법선왕(法先王) : 선왕을 본받음

6장 근천계(謹天戒) : 하늘의 경계를 삼가라는 것. 『대학』에서 인용한 “은(殷)나라를 거울로 삼을 지어다. 준명(俊命, 하늘의 큰 명)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뜻

7장 입기강(立紀綱) : 『대학』에서 말한 “나라를 가진 자는 삼가야 할 것이니 치우치면 온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뜻

8장 안민(安民)

9장 명교(明教) : 『대학』에서 말한 “군자에게는 혈구(絜矩)의 도가 있으니,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면 배반하지 않는다.”는 뜻

10장 공효(功效)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가 지극히 선함(至善)에 있게 되는 것

5편 성현도통(聖賢道統) : 『대학』의 실적(實跡)임

이러한 『성학집요』를 『율곡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8권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권(『율곡전서』19) : 임금에게 이 책을 올리는 의미를 밝힌 “진차(進筭)”와 함께 서문, 통설 등을 실음

2권~4권(『율곡전서』20~22) : 수기편(修己篇). 자기 몸의 수양에 대한 내용

5권(『율곡전서』23) : 정가편(正家篇). 가문을 바로 하는 법을 서술

6권~7권(『율곡전서』24~25) : 위정편(爲政篇). 올바른 정치의 방법

8권(『율곡전서』26) : 학문과 위정의 바른 줄기를 밝힌 성현도통(聖賢道統)